
녹색기후기금(GCF) 제11차 이사회 결과보고

녹색기후기금(GCF) 제11차 이사회 결과보고

❖ 녹색기후기금(GCF) 제11차 이사회(11.2~5, 잠비아) 개최 결과와 관련 주요이슈를 보고드립니다.

I 개요

- 행 사 명 : 녹색기후기금(GCF) 제11차 이사회
- 일 시 : 2015. 11. 02(월) ~ 11. 05(목)
- 장 소 : 잠비아 리빙스턴
- 주 최 : GCF 사무국
- 참석대상 : GCF 이사, 대리이사, 어드바이저, 옵저버 등 200여명

II 주요의제

- ① 개도국 지원사업 승인 심사
- ② 2016년도까지 개도국 지원사업 승인 규모
- ③ GCF 사업 이행기구 추가인증 심사
- ④ 신입 공동의장 선출
- ⑤ 2016년도 이사회 개최 일정
- ⑥ 기타 사항 (예산, 조직·정원 개편, 능력배양사업 등)

III

주요결과

① 개도국 지원사업 최초 승인 (8건)

- 금번 승인사업은 주로 저개발국가, 소규모 도서국을 대상으로 재원을 공여(grant)하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되었으며,
- 총 168백만 달러의 GCF 재원이 지원될 예정

* GCF 이사회에서 최초로 승인된 사업 목록

사업명	인증기관	지역	성격	지원 형태	요청액 (백만불)
페루 Datem del Marañón 지방 습지 복원	Profonanpe	페루	cross-cutting	공여	6.2
말라위 최신기후정보 및 조기경보체계 사용 증대	UNDP	말라위	적응	공여	12.3
세네갈 염류화된 지대 복원을 통한 생태계 · 지역사회 복원력 향상	CSE	세네갈	적응	공여	7.6
방글라데시 기후회복력 인프라 강화	KfW	방글라데시	적응	공여	40
동아프리카 내 KawiSafi 벤처펀드 지원	Acumen	아프리카	cross-cutting	지분 공여	25
라틴 아메리카 · 캐리비안 지역 에너지효율 녹색채권 지원	IDB	라틴 아메리카	감축	보증	22
몰디브 취약지역 지원을 통해 수자원 부족 관리	UNDP	몰디브	적응	공여	23.6
피지 도시 내 수자원공급 및 오폐수 관리	ADB	피지	cross-cutting	공여	31

[주요 이슈]

- ☞ ‘14.12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협력모델로 제안*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모델을 페루 아마존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첫 번째 사업으로 승인

* ①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결합,
②친환경에너지타운, ③전기차, ④스마트 팜

- ☞ 이 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파도, 가사도 등에서 활용중인 ‘에너지자립섬’ 모델로서, KOICA가 태양광 설비 및 ESS 관련 180만 달러 규모의 현물과 기술을 지원할 예정

* 태양광+ESS 사업은 추가 타당성 조사 후 한국기업 중 참여업체 선정 예정

② 2016년도까지 지원사업 승인규모 합의 (총 25억 달러)

- 개도국의 강력한 주장으로 회원국들은 내년까지 총 25억 달러(약 2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승인에 노력하기로 합의
- 금번 8건 승인규모는 168백만 달러로, 1개 사업당 평균금액(21백만 달러)를 적용시 내년에만 약 120개 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

[주요 이슈]

- ☞ 한국의 투자유치 기대사업은 금번 이사회시 한국 제안 사업모델로 승인받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와 더불어
- ☞ ‘폐기물 매립지가스 활용발전’이 있으며, 이미 환경부에서 GCF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검토 절차를 밟고 있고, 국내 기관·기업이 해외에서 관련사업 경험을 쌓아온 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

③ 이행기구 추가인증 연기

- 당초 9개의 기관을 GCF를 사업 이행기구로 추가 인증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 논의시간 부족으로 이번 이사회에서 추가 인증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다음 제12차 이사회에서 재논의될 예정
 - * 제9차·제10차 이사회에서 20개 기관 기인증

[주요 이슈]

- ☞ 한국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의 인증도 제12차 이사회에서 결정될 전망
 - * 수출입은행(‘15.6월), 산업은행(‘15.7월) 인증기구 신청 완료
- ☞ 이행기구 선정 심사가 비교적 엄격하지 않았던 초기와 달리, GCF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 * 제10차 이사회에서 도이치뱅크의 이행기구 승인시 화석연료 산업지원, 도덕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자, GCF 이사회는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향후 심사를 한층 엄격하게 수행하기로 결정
- ☞ 부족한 글로벌 녹색사업 경험, 개도국 출신 기구를 우대하는 분위기 등으로 이행기구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④ 신입 이사회 공동의장 선출

- 신입 공동의장으로 선진국 그룹에서 호주 대표 이웬 맥도날드(Ewen McDonald, 호주 외교통상부 장관)를,
- 개도국 그룹에서 남아프리카 대표 자히르 파키르(Zaheer Fakir, 환경부 국제관계 국장)를 각각 선출
- * 전임 공동의장 : 헨릭 하보(노르웨이), 가브리엘 끼한드리야(페루)

⑤ 2016년도 이사회 개초 일정 결정

- 제12차 이사회 : '16.03.07 ~ 03.10, 인천 송도(GCF 사무국)
- 제13차 이사회 : '16.06.27 ~ 06.30, 인천 송도(GCF 사무국)
- 제14차 이사회 : '16.10.17 ~ 10.20, 에콰도르 남비아

⑥ 기타사항

- 2016년도 GCF 예산 승인 (총 29백만 달러)
 - * 세부내역 : 이사회 3.6백만 달러, 사무국 24.6백만 달러, 수탁기관 0.9백만 달러 ('15년도 예산 : 총 20백만 달러)
- GCF 조직·정원 개편안 승인 연기, 추후 제12차 이사회에서 재논의
 - * 조직 : 2국 폐지 (민간부분기구(PSF) 국, 적응·감축(M&A) 국)
2국 신설 (포트폴리오 개발&투자(PDI) 국, 포트폴리오 관리&운영(PMO) 국)
 - * 정원 : 現 정원 56명 (IS 46, AS 10) → 추가 42명 (IS 33, AS 9)
('15.9월 기준 인력 116명 : IS 33, AS 10, 컨설턴트 62, 인턴 11)
- 능력배양사업(Readiness)에 추가로 14백만 달러를 사용하기로 결정
 - * 기존까지는 총 29백만 달러를 사용기로 결정, 각 나라에 연 1백만 달러까지 지원
 - * '15.11월 현재 GCF에 87개 사업이 신청, 약 5백만 달러의 지원협정 체결
- 개도국 사업서 제출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사업준비 지원 금융 설치 결정
 - * GCF 지원 요청액의 최대 10%(150만 달러 한도)를 공급기로 결정

붙임 1

개도국 지원사업 접수현황 및 승인결과

① GCF 접수 개도국 지원사업 제안내역

- GCF 접수 제안서 개수 : 37개 (사업총액 : 44억 달러)
- 지원 요청액 : 15억 달러

공공/민간 부문	
- 공공부문 제안서 지원 요청 금액	29개 USD 10억1천3백만
- 민간부문 제안서 지원 요청 금액	8개 USD 4억5천2백만
지리적 분포	
- 아프리카 지역 사업 제안서 지원 요청 금액	13개 USD 6억6천6백만
-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업 제안서 지원 요청 금액	13개 USD 3억5천8백만
-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사업 제안서 지원 요청 금액	9개 USD 3억7천8백만
- 동유럽 지역 사업 제안서 지원 요청 금액	1개 USD 2천만
- 다지역 사업 제안서 지원 요청 금액	1개 USD 4천2백만
취약국 지원	
-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국, 아프리카 국가 대상 지원 요청 금액	26개 USD 9억9천3백만
- 기타 개도국 대상 지원 요청 금액	11개 USD 4억7천2백만
신청 인증기구별	
- 직접 접근 인증기구	10개
- 국제적 접근 인증기구	27개
GCF에 요청한 금융수단	
- 무상증여	USD 8억8천6백만
- 차관	USD 4억3천4백만
- 보증	USD 1억5백만
- 지분	USD 4천만
지원 주제별	
- 적응	USD 6억2천3백만
- 감축	USD 5억6천4백만
- 범분야(cross-cutting)	USD 2억7천8백만

② 제안서 검토과정 (4단계)

- 제안서 승인과정 4단계는 제7차 이사회에서 결정
- 검토과정에서 사무국은 개도국 NDA와 대화를 지속

○ 1단계 : 제안서 접수 및 서류완비 확인

- * 자금지원 제안서 템플릿에 맞는 제안서 작성 여부 확인
- * 누락된 정보서류는 인증기구에 보완 요청

○ 2단계 : 사무국의 2차 실사작업

- * GCF 6개 기준에 맞춰 제안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기대 성과 평가 및 환경·사회 안전장치 및 양성평등 방침 등과의 일치성 평가

영향 잠재력	감축·적응 영향
패러다임 전환 잠재력	일회성 프로젝트/프로그램 투자 극복
지속가능 발전 잠재력	혜택 및 우선순위(경제, 사회, 환경)의 광범위성
수혜자의 요구사항	수혜국과 수혜자들의 취약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
국가 주인의식	수혜국의 주인의식과 프로젝트/프로그램 이행 역량
효율성과 효과성	프로젝트/프로그램 경제적 재무적 건전성

- * 사무국의 검토팀이 평가를 실시, 평가결과는 사무국 경영팀이 검토

○ 3단계 : 기술자문패널(Technical Advisory Panel)의 평가

- * TAP이 제안서, 부속 문서, 실사작업 결과 평가

○ 4단계 : 이사회에 제출

- * 자금지원 제안서
- * 동의 서한
- * 사무국 검토결과
- * TAP의 독립평가 결과서

⇒ GCF 사무국과 기술자문패널은 총 37개 제안서 중 제11차 GCF 이사회 심의대상으로 8개 사업을 선정

③ 제11차 이사회 승인사업 내역

○ GCF 이사회에서 최초로 승인된 사업 : 총 8개, 168백만 달러

사업명	인증기관	지역	성격	지원 형태	요청액 (백만불)
페루 Datem del Marañón 지방 습지 복원	Profonanpe	페루	cross- cutting	공여	6.2
말라위 최신기후정보 및 조기경보체계 사용 증대	UNDP	말라위	적응	공여	12.3
세네갈 염류화된 지대 복원을 통한 생 태계 · 지역사회 복원력 향상	CSE	세네갈	적응	공여	7.6
방글라데시 기후회복력 인프라 강화	KfW	방글라데시	적응	공여	40
동아프리카 내 KawiSafi 벤처펀드 지원	Acumen	아프리카	cross- cutting	지분 공여	25
라틴 아메리카 · 캐리비안 지역 에너 지효율 녹색채권 지원	IDB	라틴 아메리카	감축	보증	22
몰디브 취약지역 지원을 통해 수자원 부족 관리	UNDP	몰디브	적응	공여	23.6
피지 도시 내 수자원공급 및 오폐수 관리	ADB	피지	cross- cutting	공여	31

- 공공/민간 부문별 구분

공공부문 제안서(6개)	USD 1억2천1백만
민간부문 제안서(2개)	USD 4천7백만

- 지리적 구분

아프리카 지역 사업	USD 4천5백만
아시아□태평양 사업	USD 9천5백만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사업	USD 2천8백만

- 취약국 지원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국, 아프리카 국가	USD 1억4천만
기타 개도국	USD 2천8백만

- GCF 지원 금융수단 별 구분

무상증여	USD 1억2천8백만
지분	USD 2천만
보증	USD 2천만

- 지원 주제별

적응	USD 1억9백만
감축	USD 2천2백만
범분야	USD 3천7백만

아시아경제 (2015.11.8.)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향후 5년간 13억달러(1조4864억원) 규모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CF는 최근 잠비아 리빙스턴에서 열린 제11차 이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8건의 최초 사업을 승인했다.

승인된 사업은 지역별로 아프리카 3건, 아시아·태평양 3건, 남아메리카 2건이다. 전체 사업비는 6억2400만달러(7126억원)로 이 가운데 GCF가 직접 지원하는 돈은 1억6800만달러(약 1918억원)다.

GCF는 첫 사업으로 향후 5년간 13억 달러(1조4천846억원) 규모의 투자가 창출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제안으로 선정된 '에너지 자립성 모델'은 페루 북부의 아마존 습지인 마라논강(江)과 파스타사강 유역에서 실시된다. 에너지 자립성 모델은 전력망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ESS)에 모아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GCF는 내년 3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12차 이사회에서 추가로 사업승인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 외에 GCF에는 지난 9월까지 총 37건, 44억 달러 규모의 사업 제안서가 접수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사업모델을 개발·제안해 GCF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환경일보 (2015.11.9.)

[환경일보] 송진영 기자 =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이 제11차 이사회에서 8건의 최초 사업에 대한 1억6800만불의 지원을 승인하며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했다.

사업의 전체 규모는 6억2400만불로서, 이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대응과 관련해 향후 5년간 13억불의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GREEN
CLIMATE
FUND**

8건의 최초 승인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주민들의 '적응' 능력 향상이라는 양 분야를 모두 포함(감축 1건, 적응 4건, 감축·적응 3건)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3건), 아태지역(3건), 남미(2건)에 있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했다.

이사회는 첫 번째 승인 사업이 GCF 사업의 추진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을 인식하고 장시간의 논의 끝에 사업을 승인했다.

8건의 사업에는 한국이 제안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모델을 페루 아마존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이 사업은 페루 환경보호기금(Profonanpe)이 내년 초부터 5년간 페루 아마존 습지보호 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비계통지역(off-grid)과 보트로만 접근할 수 있는 오지의 과일가공공장 등에 태양광발전과 ESS를 설치하고 24시간 전력을 공급해 지역 주민이 산림을 보호하면서 과일을 채취하도록 하고 수확한 과일을 주스 등으로 가공·판매해 주민생활 개선도 함께 꾀한다.

기존에는 원주민들이 나무 벌목을 통해 과일을 채취해 산림을 훼손하고 화석연료(디젤)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으로 온실가스를 방출했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파도, 가사도 등에서 활용중인 '에너지자립섬' 모델로서, KOICA가 태양광 설비 및 ESS 관련 180만불 규모의 현물과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GCF 이사들은 한국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보호와 주민생활 개선이라는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GCF 유치국인 한국이 GCF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GCF 사무국은 ESS 등 혁신적인 기술 도입에 따라 GCF가 추구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다른 개도국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로 평가했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 외에도 지난 9월까지 총 37개 44억불 규모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상황으로, GCF는 이들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 2016년 3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12차 이사회에서도 추가적으로 사업승인을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GCF는 기금에 대한 개도국 국내 기관들의 직접 접근(Direct Access)을 강조하고 있는 바, 개도국들의 GCF 사업제안서 제출을 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준비 지원 금융(project preparation facility)을 설치해 GCF 지원 요청 금액의 최대 10%(최대 150만불)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추가로 1400만불을 능력배양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sonaiv@hkbs.co.kr